

추위 익숙했던 북유럽 100년만 폭염 충격...응급실 북새통

7월 평년비 8-10도 높아...1961년 이후 최장기간 30도 이상 지속
아이스링크장 주민에 개방...핀란드 사육업자들 "순록도 폐사 위기"

시원한 여름으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이 올해 전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노르웨이 북극권의 한 기상 관측소에서 7월 한 달 13일간 섭씨 30도 이상을 기록했고, 핀란드에서는 3주 연속 3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졌다.

이는 관측상 1961년 이후 최장기간 지속된 30도 이상 더위로, 기존 최장 기록보다도 50% 길어진 수준이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노르웨이 기상청에 따르면 7월에 북유럽 3국 중 최소 한 나라에서 12일간 30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지난주에는 더운 공기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시 기온이 내려갔지만, 이번 주말 다시 30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스웨덴 북부 여러 지역에서도 장기 폭염이 관측됐다. 하파란다에서 14일 연속 25도 이상을 기록했고, 요코모크에서는 15일간 폭염이 이어졌다.

스웨덴 기상·수문연구소의 과학자 스베르케르 헬스트룀은 "이들 관측소에서 더 긴 폭염 기록을 찾으려면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7월 중순에 북유럽은 노르웨이 북부 해역의 뜨거운 바닷물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

년보다 8-10도 높은 폭염에 휩싸였다. 이후 이 지역에는 폭풍, 낙뢰, 산불 등도 이어졌다.

이처럼 무더운 올여름은 추운 기후에 익숙한 북유럽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핀란드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폭염에 병원 응급실이 북새통을 이룬 후 북핀란드의 한 아이스링크장이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어 31일에는 핀란드 사육업자들이 폭염 때문에 순록들이 폐사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스웨덴 라디오는 이른바 '쿨케이션(coolcation)'으로 불리는 시원한 휴가를 즐기려고 북유럽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시원한 날씨 대신 위험한 수준의 폭염 경보에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북유럽 전역을 달구는 더욱 강력해지고 길어진 폭염은 탄소 배출과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영향이 크다.

온난화 여파로 노르웨이를 비롯해 영국, 스위스 등은 앞으로 더 급격한 폭염 증가를 겪을 것이며, 이에 대처하기에 현재 기반 시설은 적당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핀란드 기상청의 과학자 헤이키 투오넬비르타는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서 이제적으로 심각한 폭염은 더 강해지고 더 자주 또 오래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레오 14세 교황이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에서 열린 청년 대회인 기도 철야기도에서 신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전 세계 청년·신자 수십만명 로마 철야기도 운집

“선행 위해 과감한 선택 할 용기 가져라”

2일(현지시간) 전 세계 청년과 신자 수십만 명이 레오 14세 교황이 주례하는 ‘젊은이의 회년’ 철야기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 모였다.

AP·dpa통신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로마 동부 토르 베르가타의 넓은 운동장에 모여든 청년들을 향해 선행 일을 하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할 용기를 가지라고 독려했다.

중남미에서 오래 사목활동을 한 미국인인 교황은 이날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영어로 소셜 미디어의 위험성, 진정한 우정의 가치, 용감한 선택 등에 대해 설교했다.

교황은 “우정이야말로 세상을 진짜로 바꿀

수 있으며 평화로 가는 길”이라며 “세상에 정의와 평화의 증인인 복음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날 기도 중 로마로 순례길에 올랐던 청년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입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다. 사망한 청년 중 한 명은 심장 마비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앞서 이날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50만 명 이상, 어쩌면 100만명에 달하는 젊은이가 도착했다고 한다”며 “영광이며 축복”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회년은 교회가 50년 또는 25년마다 선포하는 은총의 해로, 이번 회년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2025년 1월6일까지다. 그중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3일까지는 18-35세 청년 신자를 위한

‘젊은이의 회년’ 주간이다.

철야기도는 이 기간의 하이라이트다. 철야기도에 앞서 음악 공연 등이 병행되는 이번 행사는 로마 동부 스포츠 복합단지인 토르 베르가타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물 뿌리는 트럭과 물대포가 동원됐다. 청년들은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고 드림을 두드리면서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재위기간 2000년 같은 장소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 열려 ‘가톨릭 우드스톡’으로 불린 세계청년대회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는 5월 즉위한 레오 14세 교황이 청년들과 가까이서 만난 첫 대규모 행사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한국인 성직자 딸, 美 이민당국에 체포

비자 문제...“체류기간 남아” vs “종료”

성직자인 모친을 따라 미국에 거주하며 현지 대학에 다니는 20세 한국인 대학생이 비자 문제로 법원에 출석했다가 미 이민당국에 붙잡혀 억류 중이다.

미국 성공회와 이민자 권리보호단체들은 이민당국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합법적 체류 신분이 있는 사제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공회 뉴욕 교구, 뉴욕이민연대 등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성공회 사제인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20)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고씨의 모친 김기리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 교구에서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여성 성공회

사제다.

성공회 뉴욕 교구와 고씨 측의 설명에 따르면 고씨는 모친 김 신부를 따라 지난 2021년 3월 종교비자의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다. 고씨는 뉴욕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퍼듀대에 재학 중이다.

고씨는 지난 2023년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연말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민 당국은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고씨 측 주장이다.

고씨는 지난 7월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 의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맨해튼 ICE 청사에 임시로 구금된 고씨는 조만간 다른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쿠바 주민들 ‘난민 신청대상국’ 브라질이 미국 앞질러

경제난을 벗어나고자 고국을 등지는 쿠바 주민들이 이민자를 향해 문호를 닫고 있는 미국 대신 브라질을 주요 난민 신청 대상국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유엔난민기구(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서 제공하는 난민 데이터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새로 접수된 쿠바 출신자들의 난민 신청 건수는 6만8천333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국은 브라질이 2만2천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1만7천884건)와 미국(1만3천655건)이 뒤를 이었다.

쿠바 주민들의 난민 신청 대상국 순위에서 브라질이 미국보다 많아진 건 2017년 이후 7년 만

이다. 다만, 당시엔 브라질 2천373명, 미국 770명으로 전체적인 난민 신청 규모 자체가 매우 적었다.

지난해의 역전 현상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2022-2023년 전후 급증한 미국형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보안을 다소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